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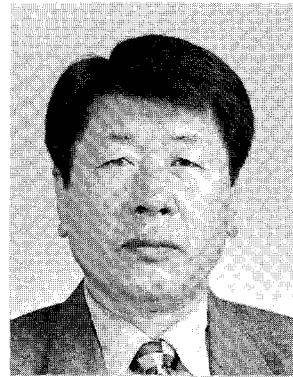
## 국산 닭고기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파벌마 되어야…

최 성 천 요한농장 대표/PS친목회 회장

**먼**저 창간 35주년을 맞이하는 월간양계와 양계협회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

육용병아리를 생산하는 종계인의 한 사람으로 양계협회는 먼저 소비자에게 국산 닭고기를 알리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월간양계는 이를 다시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소비자가 우리의 우수한 닭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무작정 닭고기를 파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 우리의 식탁문화는 많이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보다는 맛과 품질이 우선되어야 한다.



똑똑한 소비자, 꼼꼼한 소비자를 우리의 평생 고객으로 모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병아리 생산에서 닭고기 판매장까지 각 단계별 위생 및 안전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소비자의 식탁에는 국산 닭고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생산자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우리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간과한다면 우리 식탁을 수입닭고기에 내주고 결국 우리의 생산자들은 험난한 길을 가야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생산자들은 국내산 육계업 생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양계협회란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밀레니엄시대, 자유무역시대 생산자들이 흘어지면 외국에서 밀려오는 양계산물과 통상압력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한



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충분히 농가에 알리고 협회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처하도록 양계농가 계몽에도 월간양계가 나서서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월간양계와 양계협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양계인들이 생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 **양제**

## 큰알 위주의 계란 유통체계 신중한 고려를…

김 선웅 봉림농장 대표/본회 이사

**월**간양계 창간 35주년에 즈음하여, 채란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월간양계에 축하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최근 채란업계는 몇 년만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생산자 가격이 최근 15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지난해 93원의 최고가격을 보여줬던 것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의 물가상승률에 비한다면 결코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계란도 이정도는 주고 사 먹어야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기의 계란가 형성에도 불구하고 채란농장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관리를 잘하고 생산성이 좋은 농장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잊을 수 있는 시기임에 틀림없지만, 노계를 보유한 농가나 질병 관리가 미흡한 농가들은 오히려 고전을 면치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채란업계의 양면성을 볼 수 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는 몇

